

해태製菓工業
羅雄培 社長

企業은 短期勝負를

최근 수년동안 기업이 겪고 있는 두드러진 고충의 하나는 유능한 人力의 확보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존 人力을 관리하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 세대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대하고는 당혹감마저 느낄 때가 적지 않다. 일생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 아래 안정된 직업의식을 갖고 일에 임하기 보다는 短期勝負와 업적주의, 출세 지향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그저 조바심에 들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성취의식이 대단한 것은 높이 살만한 것이지만 안정과 內實보다 화려한 外樣을重視하는 현상이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물론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또 사고와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외형제 일주의, 물질만능풍조의 한 投影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企業들은 고도성장에 심취한 나머지 內實을 돌볼 겨를이 없이 일로 확대 확장주의로 치닫고 있다. 기업의 정체와 부실화는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취약점을 보완해서 기업의 저력을 기르기보다 외형적인 급성장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되든 안되든 참여해 보는 것이 요즘의 행태다. 건설 식품 전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성이 좋다는 업종을 따라 이리저리 기업들이 몰려다니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이 差金 따먹기에 몰려 들고 있는 부인들에 의한 부동산투기 대열을 방불케 한다.

또 하나 병폐적인 현상은 財力있는 기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財力있는 기업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일부

노리지 말자



羅雄培 해태제과 사장은 수익위주의 단기승부에 집착한 무모한 업종확장은 경영의 심화를 가로막을 것이라 말했다.

기업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성장 아니면 무능으로 취급받은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害惡을 낳을 것인가. 첫째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기업의 전문화를 저해할 것이란 점이다. 수익위주의 短期勝負에 집착한 무모한 업종확장은 경영力點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영의 深化를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과 시련을 극복하는 노력의 축적없이 전문성은 길러지지 않는다.

둘째로 우려되는 것은 기업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술축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長期眼目的 개발연구투자와 시장여건에 맞는 經營技法의 개발은 외형적 업적주의 아래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기술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바랄 수가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輸入自由化품목 선정작업을 벌일 정도로 본격적인 개방체제로의 전환시점에 놓여 있다. 輸出產業은 정부의 각종 지

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감당해 나간다고 해도 취약점이 허다한 內需産業들은 앞으로 밀어닥칠 값싸고 질 좋은 외국제품과 어떻게 겨루어 나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로 우리 경제는 수출 1백억달러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쟁력면에서 「이것이다」 하고 내세울만한 것을 신통 꿈을 수가 있는가.

자기자본 20%라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이나 기술수준의 빈곤을 저임금이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하루 바빠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외형성장도 좋지만 「이것 하나를 위해 필생의 全力投球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문화와 기술축적을 이룩해 가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 전반의 정상화와 합리화를 위한 경영자세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